

간증에 은혜받아 그와 같이 믿음으로 행할 때 죽을 직전의 가족이 살아난 앙골라만민교회 이라오 항가 무쿰비 목사의 간증.

자신을 희생하며 성실과 진실로 변함없이 도리를 좇은 ‘뜻은 이방어인 임에도 다윗의 증조모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자사에 큰 은혜를 받아 널리 전하고자 문서선교에 힘쓰고 있는 말레이시아 위치한 집사의 사신

폐업의 위기에 놓인 사업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재기하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 행함으로 큰 축복을 받은 김덕영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960호 2022년 1월 2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죽음 직전의 이모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라오 항가 무쿰비 목사 (53세, 앙골라만민교회)



2021년 12월 14일, 사촌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초부터 몸이 아팠던 이모님(알리스 단두, 79세)이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촌에게 의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

이모의 뇌의 기억장치 부분과 뇌의 아랫부분에 있는 연수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이곳은 많은 신경 조직이 모여 있고 심장박동, 호흡, 체온조절 등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했지요. 이미 이모님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장내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면 72시간 안에도 사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들과 같이 키워 주신 분이였기에 사랑하는 이모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불해야 치료에 들어갈 수 있기에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딸에게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지불했지요.

의사들은 중환자실에서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의 병세에는 차도가 없었고,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액체가 흘러나와 옷과 침대 시트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민중앙교회 선교지 ‘만민뉴스’를 포르투갈어로 번역하는 일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포르투갈어 만민뉴스(113호)를 번역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 서비스(ARS) 기도를 통해 고추나무가 2미터 이상 자라고 고추가 많이 열려 대풍작을 이뤘다는 한국의 강향숙 집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즉시로 번역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모님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듣게 해 준다면 비록 죽을 직전에 계시지만 틀림없이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모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 영상을 틀고, 컴퓨터 앞에 이모님의 사진을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당회장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병원에 있는 사촌에게 전화해 이모님의 귀에 휴대폰을 대고 제가 들려주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반복해 듣게 하였지요.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모님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의식이 돌아와 눈을 뜨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촌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제게 전화해 이 소식을 전했지요. 저는 이모님이 완전히 치료받기까지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날인 12월 18일, 의사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이모님이 깨어났습니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기억력도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사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의사에게 이모님과 통화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의사는 짧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물으니 이모님은 ‘그래, 내 아들이. 너는 내 조카 아라오지’라고 대답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났단다. 저 멀리서 한 온화한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반복해서 내게 말했고 이후 내 영혼이 다시 내 몸으로 돌아왔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날 이모님은 퇴원하셨고, 이제는 혼자서도 식사하시고 걷기도 하시며, 건강이 회복되고 계십니다.

이모님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람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이모님을 살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만민뉴스를 통해 간증해 주신 강향숙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보고 따라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Com apenas a Oração do pastor ressuscitou dentro...  
 ALICE NDANDU  
 No dia 14 de dezembro...  
 Já passou quase 2 semanas...  
 Pedi na minha prima...  
 O corpo dela então...  
 O ar que está no corpo...  
 Ouvindo o diagnóstico...  
 Depois de pagar a...  
 grudando em suas roupas e lençóis de cama.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뜻의 선(善)

“뜻이 가로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기 1:16~17)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시라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했습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참으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고난을 받으도록 내어주신 것도 바로 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이 의롭고 선하며 깨끗하게 변화된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성경상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선의 분야들을 살펴볼 때, 진리 안에서 나는 마음의 선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도리를 좇는 선을 온전히 이룬 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끝까지 자신의 도리를 좇는 뜻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했으며선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누구보다도 축복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나오미다.

뜻은 모압에 살던 이방여인으로서, 심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남자들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음을 맞는 비극을 겪게 되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동서 오르바, 그리고 룻만 남게 되었지요.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는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남자가 없는 집안에 소망 없이 지내야 할 며느리들을 안쓰럽게 여겨 그들에게는 타국인 유다 땅에까지 따라 오지 말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르바는 울며 떠났지만 룻은 계속해 시어머니를 붙좃았지요. 이러한 룻에게 나오미는 재차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강권합니다.

그런데 룻은 더욱 단호한 말로 어머니를 붙좃고자 하

는 자신의 진심을 나타냅니다. 룻기 1장 16~17절에 “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지요.

아무 의지할 곳도 소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도리를 좇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함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룻은 이방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증조모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과연 룻은 어떠한 선의 마음을 소유했기에 이처럼 축복받은 여인이 됐을까요?

## 2.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룻의 선

### 1) 자신을 희생하며 도리를 좇는 마음

‘도리’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이 어린 사람은 어른을 존중하는 등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갈 때 이를 ‘도리를 좇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리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굳이 선이라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룻을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룻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도리를 좇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일가친척이 있고,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좇아간다면 낯선 땅에서 당장 먹고 살 뚜렷한 방안도 없었지요. 더욱이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룻이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하면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이 머나먼 이방 땅에 홀로 남는 처지가 되지요.

이처럼 그 결과가 분명히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육으로 보면 한 길은 고생이 훨씬 보이는 길이고, 한 길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며느리를 생각해 고생길이 아닌 행복의 길을 택해 가라고 강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은 앞뒤 상황을 재거나 자신에게 어떤 길이 유익될지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호히 자신의 도리를 좇아 흘러온 시어머니를 섬기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도리를 좇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빠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성수하고, 심일조를 드리며, 계명들을 지키게 되지요.

도리를 좇는 편을 택하는 선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심일조를 드리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은혜의 체험을 하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심분의 일만을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초산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주일 성수와 심일조 생활을 잘합니다. 이처럼 선의 마음으로 신앙의 성장도 더 빨리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 드림으로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며,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음에 도리를 좇아 하나님의 뜻을 택했다면 그 택한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체험을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룻처럼 자신의 도리를 좇는 선이 있으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물론,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체험을 주시며 영적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 2) 성실과 진실로 변함없이 도리를 행하는 마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좇아 행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룻을 선하다 하심은 도리를 좇아 행하되 억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예배/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예배/ 단. 토요일은 제외)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십자가의 도**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천국(상·하)**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사와 상급 등 8 비밀

**지옥**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

**믿음의 분량**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브르,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가 아닌 성실과 진심으로 변함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변함없이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지요. 룯은 시어머니를 좇아 유대 땅으로 온 후로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처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당장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온종일 주운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개하면서도 기쁘게 여겼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상세히 아뢰었지요. 친딸보다 더한 성심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룯을 친딸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룯의 행실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져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읍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시어머니의 근속으로서 룯의 기쁨 무를 자가 돼 룯을 아내로 삼게 됐고, 그녀는 영육 간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룯 2:20, 레 25:25). 룯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로, 룯은 이방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중심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 몇

번 하다가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를 좇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뚝뚝 변함없이 선을 행하지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진리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지요. 더군다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도리를 다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분들은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기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니”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합 3:17-19).

우리 주의 종님들과 모든 일꾼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된 도리, 주의 종의 도리, 그리고 주의 일꾼 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며, 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분의 은혜를 잊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계신지요? 만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됐다면 영육 간에 자신의 도리를 좇아 변함없이 행할 것입니다.

룯과 같이 자신의 도리를 좇는 선을 온전히 이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URIMBOOKS SIBU JAYA**



▲ 위청친 집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가족들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성결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위청친 집사 (말레이시아 시부 자야 만민 지성전)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에 큰 은혜를 받아 2013년부터 여러 문화제에서 당회장님의 저서를 판매하던 중, 이곳 시부 자야에도 서점과 성전을 세워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2018년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당회장님의 저서를 통해 문서 선교를 이루는 ‘우림북’ 담당자를 만나 서점 운영에 대해 협의한 뒤 귀국하자마자 제가 소유한 건물 2, 3층의 임대를 해지고 서점과 성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여유롭게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니 202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가 좋은 가격에 팔려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었고 운영하던 음식점도 좋은 가격에 임대할 수 있었지요. 현재는 음식점을 비롯해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임대하여 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가족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서점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작년 말, 성전을 완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서점은 지난 1월 7일에 정식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서점과 성전을 통해 만민과 더욱 하나 되어 세계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 사업터에 축복이 넘칩니다!”

김덕영 집사 (48세, 1대대 1교구)



2017년 말, 제가 운영하는 CCTV 사업터가 난항을 겪게 되면서 2018년 3월에 폐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침을 맞는 것이 몹시 두려울 정도였지요.

때마침 2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던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약에 참석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며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했지요. 저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 가족 모두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당회장을 뵈었습니다.

꿈에서 어느 일꾼이 당회장님께서 저를 기다리신다고 하여 따라가니 당회장님께서 호수에서 낚시하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낚시대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동안 낚시대를 내리고 있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요. 당회장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셔서 제게 맛있게 구워 주시며 “집에 갈 때에도 가져가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후 정부 정책자금 승인이 나서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저는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하리라'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인 줄 깨닫지는 못

하였지요. 그러던 2018년 12월 토요일, 그날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던 특별찬양을 듣고 있는데 여느 때와 달리 멘트가 크게 마음에 새겨지며 그 자리에서 통회자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터를 운영하기 원하는 제게 그 전날 결정한 일을 통해 큰 깨우침을 주신 것이었지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어 하나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은 귀로라도 듣게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누나 김은정 권사님을 통해 여러 신앙적인 조언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찾기를 즐겨했습니다.

2019년 말에는 아동주일학교에 부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누나로부터 전해 듣고 저보다 믿음이 좋은 아내(이성애 집사)를 부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2020년 초, 어떠한 계기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잘되어 축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해였음에도 사랑으로 세밀하게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교구장님의 말씀으로 6월 7일, 아내와 대대교구장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후 계획에 없던 대량 주문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 점검 과정에서 거래

하던 반도체업체로부터 반도체 생산 문제로 공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지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저는 12월에 대교구장님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기도할 때에 교회 행사 ‘만민찬양제’가 떠올라 15일에 잔조 현금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다음 날, 공급 상황이 어려웠던 반도체 물량이 대만과 중국에서 확보됨으로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3일 은사 집회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족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회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뒤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았는데 뜨거운 불이 임했지요. 이를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바이어로부터 일본 협력사가 대기업에 CCTV 제품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제품은 저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실사를 받게 되었지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10월 10일, 저는 대대교구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순풍에 돛을 단 듯 12일 실사를 통과했고 20일에는 1차 오더, 11월 20일에는 2차 오더를 수주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축복은 수입업체의 특성상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기에 앞으로 다년간 수출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순종해 나갈 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C-6를 통해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불성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매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1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1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1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사천구 동평로 169 ☎0519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영사면 향원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민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1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010-69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1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함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1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6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1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선 서울시 강동구 암재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겸단지성선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선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선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1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선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선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선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선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1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